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타사광고 규제 완화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영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감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부석면 도시가스 특별 공급 사업 착공식 개최

서산시는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부석면 도시가스 특별 공급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부석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 착공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사업은 인지면 일원부터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일원까지 약 10km의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60억 원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부석면 12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산시는 에너지 소외지역이었던 부석면 일원 주민의 난방비 절감,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과 생활 복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특별 공급 사업은 운산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시와 농촌 간 생활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이 부석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 보조 상품 전달식을 열었다. 보조 상품은 ㈜선양소주 대표 상품인 소주 '선양란' 20만 병에 부착되며, 충남 서부권에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의 개최를 알릴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환경교육 계획 수립’ 원탁토론회 개최

충청남도, 환경교육 전문가와 도민 의견 수렴 및 환경교육 방향성 모색



충청남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교육 전문가,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환경 현안과 교육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의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이 목표이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 환경과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환경교육의 중요성 및 분야별 문제점 △계획의 주요 키워드와 정책 제안(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충남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 간 교육 기반 격차 해소,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대학생·노년층·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

화된 환경교육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세밀하게 분석해 제4차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 기획 초기부터 도민 참여를 강화해 구체적이고 체감도 높은 환경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운성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정책 기획 초기부터 도민 참여를 강화해 구체적이고 체감도 높은 환경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환경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실현할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 지상과 방송사 BS후지 코리스트와 도내 주요 관광 명소 홍보 기획방송을 제작한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팸투어 활용을 통해 추진되며, 본방송은 10월 5일 방영되고 일주일간 재방송된다.

방송을 통해 백제문화단지, 궁남지, 서동요 테마파크, 청산수목원 등 도내 대표 관광지를 소개한다.

이현진 기자

추석 대비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특별점검

8일~12일 축산물 취급업소 10곳 합동점검, 미생물·원산지 검사 등 병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코너 등 10곳으로, 최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달걀 유통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항목은 ▲국내산·수입산 둔갑판매 여부 ▲육류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변조 등 허위표시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사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검사와 원산지(한우 유전자) 검사 등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육, 달걀 등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종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9월 한 달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사회보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정책 체감도를 파악하고,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세종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공통문항 외에도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문항 20개가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고용 ▲문화 ▲교통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문항들이 다수 담겼다.

시는 지역 맞춤형 문항을 추가된 만큼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복지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봉 기자

반도체·바이오 생산 장비 고도화

‘충북TP 생산장비 고도화지원 사업’ 완료 운영 돌입

충청북도는 '충북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고도화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지원 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9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9억 원, 도비 7.5억 원, 민간부담금 7.5억 원 등 총 30.9억 원이 투입된 장비 고도화 프로젝트로,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8개월간 진행됐다.

사업을 통해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인증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노후 장비를 보완·교체했으며, 특히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 수요를 전략적으로 반영해 장비 고도화를 추진했다. 새롭게 구축된 장비는 지역 기업들이 기술검증, 제품개발, 공정개선, 품질인증 등 다양한 기술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

도화되었다.

특히, 첨단반도체 분야에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장비를 포함한 총 6종의 장비가 도입됐으며, 융합바이오 분야에는 바이오공정 및 유기화합물 분석을 위한 장비 6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충북도는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반도체,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열 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비 보안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R&D 및 비R&D 분야에서 도내 기업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세쌍둥이 모두 무럭무럭 자라길”



이장우 대전시장이 9일 시청 응접실에서 세쌍둥이 태어난 지 백일을 맞은 세쌍둥이 출산 공무원 부부를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주인공은 지난 6월 2일 태어난 박소윤, 채윤, 조윤 세쌍둥이 자매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서구 노인장애인고아에 각각 근무하는 전유경·박준용씨 부부다.

세쌍둥이 엄마인 전씨가 출산 직후 대전시 인터넷 내부망(경조사방)에 출산 휴가 중 담당업무를 분담해 준 동료 직원들과 대전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잇따랐고, 이날 자녀들의 백일을 맞이하게 됐다.

이장우 시장은 "백일은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잘 적응해 온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잘 자라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아이들은 지역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돌봄 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격려했다.

전유경·박준용씨 부부는 "임신 중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분담 등 배려와 시의 제택근무, 육아시간 사용제도 덕분에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로 열심히 키우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대전 지역 유아용품 전문업체인 ㈜더밤부 임재경 대표도 참석해 90여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후원, 민·관이 함께하는 출산 육아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종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쌍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직원들이 출산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챙기는 육아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도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PLATINUM CERTIFIED

더 깨끗하게, 더 맑게!

수자원 회복을 위한 삼성전자 반도체의 노력

하루에 약 40,000t 방류

Clean Water

수달이 돌아왔다! 오산천 수생태계 복원에 힘쓴 삼성전자 반도체

수생태계가 악화되었던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수생태계가 건강하고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거 오산천은 건천화로 인해 생태계가 악화되고 악취도 났었다.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는 2007년부터 오산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용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루에 약 4만 톤 정도의 물을 방류한 것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수질 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고, 토종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꾸준히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 선언!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 등급 Platinum 인증도 취득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자연에서 가져오는 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재이용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해 총 3단계의 폐수 처리 과정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평택캠퍼스 등이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정부, 지역사회, 관련업계 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자원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